

“금지구역 아닌데 뭐 어때”... 음주산행 여전

무등산 국립공원 음주산행 단속 동행해보니

서석대·새인봉 등 일부만 금지...늦제 등 음주 제지방법 없어 금당산 등 도심 등산로에서 버젓이 술 판매 등 실효성 우려

“단속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며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주말인 지난 31일, 기자와 동행한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푸념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장불재(919m)~임석대(1017m)~서석대(1100m) 구간 음주행위 단속·계도활동을 했다.

해당 구간은 무등산에서도 암반이 많은 곳으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음주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이날 단속 대상지역에서 음주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어김 없이 빈 막걸리병, 소주병 등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속 구역을 조금 벗어나자 음주를 즐기는 탐방객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실제 이날 정오 무렵 무등산 늦제 등산로 인근에서는 술취한 탐방객들끼리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해 지나가던 등산객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금지구역이 아닌 탓에 이들을 제지할 방법조차 없었다.

주광호 무등산국립공원 구조대 반장은 “등산객들이 단속 요원들의 눈을 피해 음주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단속 구역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면 손쓸 방법이 없다. 무등산에서 하루 평균 2~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데, 절반 정도가 음주와 관련된 사고”라고 말했다.

정부가 음주산행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등산의 경우 음주 행위 금지구역이 서석대 일원, 새인봉, 용추계곡(별집바위) 등 일부 탐방로와 암장 등으로 한정되고, 정작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머리재, 도끼등 등 주요 코스는 빠져있다.

산에서 음주를 금하고 있음에도 중심사입구 등에 있는 편의점, 상점에서는 막걸리, 맥주 등 술을 판매해 등산객들에게 음주 산행을 부추기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또한, 등산객들이 술을 배낭에 숨기거나 보온병 등에 담아 마실 경우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원사무소측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음주산행 단속·계도 인력이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남구 금당산 등 도심 속 등산로 곳곳에서는 불법으로 막걸리 등 각종 술을 판매하는 노점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커녕 계도활동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주산행은 음주자의 안전도 문제지만, 다른 등산객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무등산 산행에 나선 정민주(38·광주시 광산구)씨는 “산행 도중 술취한 사람들을 보면 무서움을 넘어 공포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면서 “모든 구역에서 음주산행을 금지하는 등 관련법이 더 강화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금지장소로 지정된 국립공원 내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음주



주말인 지난 31일 정오 무렵 무등산국립공원 늦제 인근 벤치에서 탐방객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행위 적발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6개월(2018년 3월13일~2018년 9월12일)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 등산에 따른 안전사고가

줄어지고 있어서다. 2012~2017년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64건으로 이 기간 안전사고(1328건)의 4.8%를 차지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에 달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아산서 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개를 포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도롯가에서 포획활동을 벌이던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가 1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로 도롯가에 주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김신형(여·29)씨와 임용

예정 교육생 김은영(여·30)·문새미(여·2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허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다음 날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시속 75~76km로 운전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90km다. /연합뉴스

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승원 판사)은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 특성상 박씨는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또 셔틀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박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폐렴, 급성호흡부전의 발생과 박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평일에 6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던 중 2016년 5월 거주지 계단에서 쓰러졌다.

박씨는 병원에서 폐렴,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단서 가상화폐 불법 채굴 13개사 적발

광주 하남·평동산단 등

광주 산업단지 입주해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남산단 6곳, 나노산단 3곳, 평동산단 3곳, 진곡산단 1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산단 내 공장 일부를 빌려 업체당 컴퓨터 100~350여대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은 자유업이지만 산단

조성 목적인 제조업과 관련 없이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해서는 안 된다.

이들 업체는 일반용보다 10%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에 공장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 채굴(mining)은 수백대의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적발된 불법업체를 통보해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촉구했다”면서 “향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차량 저수지 빠져 도의원 출마자 실종

영광서...잠수부 동원 수색

전남도의원 선거(영광군 1선거구)에 출마한 박영배(57) 전 전남도 정부비서관이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져 실종됐다.

목적자들은 “박 전 비서관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도로 턱을 넘어 저수지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사고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해 “물에 빠졌으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해 수심 8m 지점에서 차량을 발견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찾지 못했다. 차량의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었다.

조사결과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지역 행사에 참여한 뒤 지인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저수지 인근 등산로에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자들은 “박 전 비서관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도로 턱을 넘어 저수지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사고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해 “물에 빠졌으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6대 영광군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낙연 총리의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 정부비서관을 지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장흥서 차량 충돌사고

1명 숨지고 5명 부상

지난 31일 낮 12시20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교차로에서 A(30)씨가 운전하는 SUV차량과 B(67)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아

내 C(여·32)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좌회전과 직진을 하다 서로 못보고 부딪힌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부리에 링 걸려 먹이 못 먹어 탈진한 순천만 흑두루미 구조



○순천만에서 월동을 끝낸 뒤 번식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15분께 순천시 인월동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 인근 들뜰에서 흑두루미 1마리가 부리에 고무재질의 링이 걸

려 먹이를 먹지 못해 탈진한 상태로 음썩썩 못하고 있다가 센터 직원에 의해 구조됐다는 것.

○구조된 흑두루미는 수액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 끝에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께나 흑두루미 무리가 순천만으로 오면 구조된 흑두루미에 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해 자연을 방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더 빨리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